

이3
상제노역 중국 생존자
시 회사에 배상요구
-김희수 특파원] 태평양전
1인 6월 일본 아키
하. 광산에 강제연행
국인 노동자들이 학대에 반
봉기했다가 무참하게 살륙
'하나오카 사건'의 중국인
자와 유족 6명이 26일 도쿄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작업
지시한 회사인 가시마구미(현
마)에 배상을 요구했
1992. 06. 28

북한, 원폭피해 보상 일본에 제기
1992. 6. 17 156
대일 수교회담서
【도쿄=연합】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김사만
북한 외교부 국제기구담당 과장
은 16일 앞으로 일본과의 수교회
담에서 북한의 원폭 피폭자에 대
한 보상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
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교도통신>과
의 회견을 통해 "북한의 피폭자
실태를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본과의 교
섭에서 제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군위안부문제와 더불어 북한
거주 피폭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북한-일본 수교회담에서 새로운
의제로서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거주 피폭자 수는 히로시
마 1천5백명, 나가사키 5백명 등
모두 2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
다.

이3 2차대전 日本조선소 근무韓人
회사측拂入 賠償 要求 日本
【東京聯合】 2차대전 말에
강제연행돼 미쓰비시(三
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에서 일했던 韓國人
피폭자 金順吉씨(69·釜山)
가 19일 日本 나가사키市
나가사키 중앙우체국을 방
문, 당시 회사측이 불입했
던 저금의 소재 확인을 요
구했다고 日 교도(共同)통
신이 보도했다.

반일연대회의 발족
이3
정신대협의회등 8개단체
1992. 07. 22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태평
양전쟁희생자 유족회 등 8개 단
체는 2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일본군국주의 부활저지
와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연대
회의(반일연대회의)'를 공식 발
족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 아래 본격
적인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려는 기도"라며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 법안
철회 △자위대의 해외파병 중지
△정신대 만행에 대한 공식사죄
와 배상 등 9개항을 촉구했다.